여래의 가슴에 새겨진 '卍'의 본질은?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卍→卐 ㊦



卍자는 불교의 심볼이다. 이 卍자는 곧 불교이다. 따라서 불교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바로 이 卍자가 없는 데가 없다. 그런데 흔히 卍의 모양을 보고 만자(卍字)라고 부른다. 그러면 글자인가? 그러면 만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알려면 먼저 사전들을 찾아본다. 역시 조형언어에 관한 한 모든 사전류는 악사(惡書)들이다. 〈한한대자전〉(민중서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해(字解): 만만. 범자(梵字)의 만(萬)字. 원래 부처의 가슴에 있다고 하는 형상으로서,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 번역함. '一, 音之謂萬. 謂吉祥萬德之所集也'《화엄경음의》

자원(字源): 象形. 본디 인도의 쿠리슈나신(神)의 가슴의 선모의 상형으로, 길상만덕을 나타냄.

참고(參考): 일설에, 자형이 卍은 잘못이고, 卐이 옳다고도 함.

이상을 보면 이미 자원(字源)에서 길상만덕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전이라고 모두 믿으면 안 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며 읽어내어 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운허 스님이 펴낸 〈불교사전〉을 보면,

범어 – Svastika, 파알리어 – Svatthika, 길상의 표상, 중국에서는 색박실저가(塞縛悉底迦)라고 음역, 길상(吉祥), 유락(有樂), 덕상(德相), 경복(慶福), 행운(幸運) 등으로 번역. 예전부터 불교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썼다. 불교에서는 만덕원만한 모양(吉祥海雲相)으로서 부처님의 가슴에 그리고 불심인(佛心印)이라 부름. 또한 부처님의 발자국에도 있음.

그 다음에는 〈불교미술사전〉(동경서적)을 보면, 아예 卍의 항목이 따로 없다. 다만 '길상문'의 항목에 아주 간단히 '卍字'는 뱀이나 태양과 관련되어 행운을 뜻한다, 라고만 쓰여 있다. 그런데 〈사능형(紗綾形)〉이란 항목은 따로 두어 '卍자를 경사지게 하여 사방으로 전개시킨 문양'이라고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직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전을 무조건 믿으며 卍이란 조형에 관련된 글을 쓰고 있으며 모든 논문도 이를 바탕으로 쓰여 지고 있는데, 이상의 언급은 대부분 옳지 않다. 오직 취할 것은 〈자원(字源): 상형(象形). 본디 인도의 쿠리슈나신(神)의 가슴의 선모(旋毛)의 상형〉이란 글이다. 그런데 선모란 '오른 쪽으로 도는 털'이란 말인데 이 말 조차 올바른 말이 아니다. 오로지 새겨서 취할 것이란 '오른 쪽으로 도는 털 같은 형상'이지 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전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형미술에 관한 한 거의 모두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때때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제부터 卍의 본질을 향한 멀고도 먼 길을 걸어가 보자. 그것은 여래와 보살을 만나러 가는 희열에 찬 역정이다.

卍과 卐의 조형은 다르다

卍과 卐의 조형에서, 첫째 것은 왼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다음 것은 오른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선회한다는 모양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반복하여 그려보기 바란다. 즉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 조형은 세계적으로 기원전(紀元前)부터 유행하던 조형으로 원래 글자가 아니요, 더구나 용어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卍자이다. 즉 글자로 되어 있는데 중국 당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글자가 아니데 글자로 만(萬)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인가? 그것은 사전에서 이미 읽은 만덕(萬德)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른 말이다.

더구나 〈화엄경〉 같은 권위 있는 책은 없다. 이미 사전에 나와 있다시피 그 제48권에는 "여래(如來)의 가슴에는 훌륭한 분의 특징인 卍자 모양이 있다. 이것을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고 부른다. 조화가 자재한 마니보주(摩尼寶珠)로 장엄하여 온갖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가지가지의 광염을 둥글게 뿜어내면서 온 누리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온 누리를 깨끗하게 하는 묘음(妙音)을 내어서 온통 세계를 진리의 바다처럼 넘실거리게 한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의 모든 불화에는 卍자를 여래나 보살의 가슴에 커다랗게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여래와 보살의 가슴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여래와 보살의 마음에 표현하였으니 매우 중대한 의미를 품고 있으리라. 실은 논문으로 써야 할 주제이지만 이 연재에서 가능한 한 간단히 해석해 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 예컨대 조선시대 개암사(開巖寺) 괘불의 여래의 가슴에 큰 卍자를 빨간 색으로 표시하여 놓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그림 ①)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가슴에 큰 卍자가 표시된 조선시대 개암사 괘불.

藥이 되는 사찰음식

무와 함께 먹는 '메밀전병' 다이어어트에 좋아



무나물 메밀빙떡

△재료(4인 기준)

○ 무 300g, 생강즙 2큰술, 소금 1/2작은술, 들기름 2큰술

○ 메밀가루 1컵, 물 2컵, 소금 1/2작은술, 포도씨유 1큰술

△만드는 법

① 무는 높이 4cm 정도로 자른 후 약간 도톰하게 채썬후 소금, 생강즙, 들기름으로 밑간을 한 후 부드럽게 볶는다.

② 메밀가루에 물과 소금, 포도씨유를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체에 한 번 내린다.

③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바르고 메밀전병을 부쳐낸다.

④ 부쳐낸 메밀전병에 볶은 무나물을 넣고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썬다.

배추 장김치

△재료(4인 기준)

○ 쌈배추 1포기(300g)

○ 소 – 표고버섯 10장, 당근 100g, 청고추 3개, 홍고추 1개, 생강 2톨

○ 양념 – 맛간장 1/2컵, 매실식초 5큰술, 매실청 2큰술, 들기름 2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쌈배추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

② 표고, 당근, 청고추, 홍고추, 생강은 채썬다.

③ 양념은 잘 섞어둔다.



④ 팬에 식용유 둘러 표고, 당근, 홍고추, 생강을 넣어 볶은 후 양념과 청고추를 넣어 간을 맞춘 후 완전히 식힌다.

⑤ 데쳐낸 배추 사이사이에 소를 넣고 1일 정도 맛을 들인 후 먹는다.

소화불량에 좋은 배추 장김치

무와 궁합이 잘 맞는 양념은 생강으로 무생채나 무나물을 할 때 즙을 넣게 되면 보다 깊은 맛을 낼 수 있다. 또한 무 특유의 약간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설탕을 넣어도 좋다. 무로 나물이나 생채를 할 때 세로로 잘라 결을 살려 썰게 되면 잘 부서지지도 않고 아삭한 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무나물을 그냥 먹어도 좋으나 메밀로 부드러운 전병을 부쳐 무나물을 싸서 먹게 되면 간단한 식사대용으로도 좋으며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좋다. 메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소화가 잘되는 것이 특징이나 끈기가 없어 저병을 부칠 때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부서지기 쉬운데 이때는 메밀의 끈기를 보충해주기 위해 밀가루 적당량을 섞어 사용해도 좋다.

무와 함께 가을에는 배추도 제 맛을 내는데 배추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강하게 하며 소화불량 변비 해열 종기 숙취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그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다. 그러나 많이 먹게 되면 냉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생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배추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양념에 적당량의 생강을 항상 곁들이는 것이 좋다.

장김치를 담는 배추는 너무 두껍고 큰 배추보다는 작은 쌈배추의 형태가 간이 잘 배여 먹기에도 좋다. 데칠 때는 숨이 죽는 정도로 살짝만 데쳐 아삭하게 준비하고 소는 수분이 너무 많지 않게 볶아야 간이 알맞게 된다. 그리고 소를 채울 때도 완전히 식혀서 넣어야 잘 상하지 않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돌고래 슈퍼 에너텍
사무실 02)471-2356
1688-5687, 011-335-6389

모든 교법을 모아 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 · 해설
신국판 | 양장 | 2도칼라 | 348쪽 | 20,000원
문 · 사 · 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불교의 개론서이자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二色을 사용하였다. 정원(淨源: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微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얕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여기서 수승한 근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얕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